‘GPS 드로잉’, 저작물로 보호 가능할까?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등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까지.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이나, 콘텐트 창작 또는 제공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형태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을 ‘GPS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의 한 형태이다. GPS 드로잉’은 그 이동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펜의 역할을 하면서 이동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GPS 드로잉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봐 저작재산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필자의 사견으로는 GPS 드로잉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법(즉, 시각화)의 하나(즉,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이동경로 기록을 통해 시각화된 이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동경로를 기록한 데이터 파일(GPX 타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아지런(Gang-aji Run)’이라는 GPS 드로잉의 저작권 등록 사례가 화제다. 창작자는 위 작품을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최종적으로 위 작품의 데이터 파일에 관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위 작품의 시각화된 이미지가 위 편집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사례에서 창작자나 그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시각화된 이미지, 데이터 파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GPS 드로잉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된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기계 또는 프로그램, 정보나 데이터 등에 기초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티메프 사태’, 시스템 문제가 맞다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안 됐네요.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단순 해프닝이겠죠?”

지난 7월 9일 티메프 판매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티메프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 오류로 12일까지 판매대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확신에 찬 답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길 바랐던 ‘시스템 문제’ 사건은 ‘티메프 사태’로 번졌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날아갔지만,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회·정부로도 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짐도 없이 터진 문제가 아니기에 당국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티몬은 금감원과 지난 2022년 6월 1차 경영개선협약(MOU) 당시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 수치를 2022년 말에는 51%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맺은 2차 협약을 통해 ‘사업자의 노력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티몬이 직접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티메프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신규 투자유치 시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티몬은 올해 3월 말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치를 10%로 낮춰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MOU 내용 중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강제적 조치 수단’이 없어 막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유동성이 악화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인허가업체’에 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티메프처럼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는 MOU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도 전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은 2010년 약 19조원에서 2019년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106조원으로 성장하더니, 지난해 210조원에 달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국회가 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비롯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5일 (음 7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소 표 날이니 외출할 일이 발생. **48년생**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편하다. **6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72년생**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 **84년생** 강한 것을 건드리면 자신이 다칠 수가 있느니.

3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49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61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73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가 좋다. **85년생** 오늘은 집안에 걱정할 일이 없이 편안.

38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50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2년생**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7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86년생** 부모님의 삶도 고단하다는 것을 알아라.

39년생 현실은 쓴맛 단맛 다 보는 일. **51년생**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신용은 최선. **63년생** 세월은 흐르게 되어있으니 기다려라. **75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7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

40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52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울적. **6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76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복 받는다. **88년생** 욕심이 과하다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41년생 이제라도 기초를 세워야 후회하지 않는다. **53년생** 부러움을 많이 사는 날이나 실속은 적다. **6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7년생** 누구라도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89년생** 금전 문제로 이득이니 계약 성사.

42년생 익숙한 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54년생** 가정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니 투자는 신중. **66년생** 위기의 탈출은 남은 비상금을 활용하여. **78년생** 불평을 밖으로 내뱉기보다는 관망을. **90년생** 실패에 대한 공포를 떨치는 데는 신념이다.

43년생 상냥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55년생** 최선을 다하니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67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지 마라. **79년생** 좋은 기회이니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91년생** 양보가 비굴하다는 생각은 접도록해야.

44년생 두드리지도 않고서 포기하지 마라. **56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8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하게 기술실력을 쌓자. **80년생** 부모님의 지원이 부담이 많이 되나 받아라. **9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45년생 앓던 이가 쑥 빠지는 날이다. **57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답이 보인다. **6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1년생** 마음을 비우니 일이 많아지면서 신명이 난다. **93년생** 고민이 많으나 해결책의 귀인이 온다.

46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7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 **82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시작. **94년생** 오랜만에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47년생 암탉이 우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것으로 운다. **5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71년생** 오늘은 새것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다. **83년생**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배우며 산다. **95년생** 돼지띠라 그런지 푸바오가 안타깝기만 하다.

김상회의 四季

풍수의 대가는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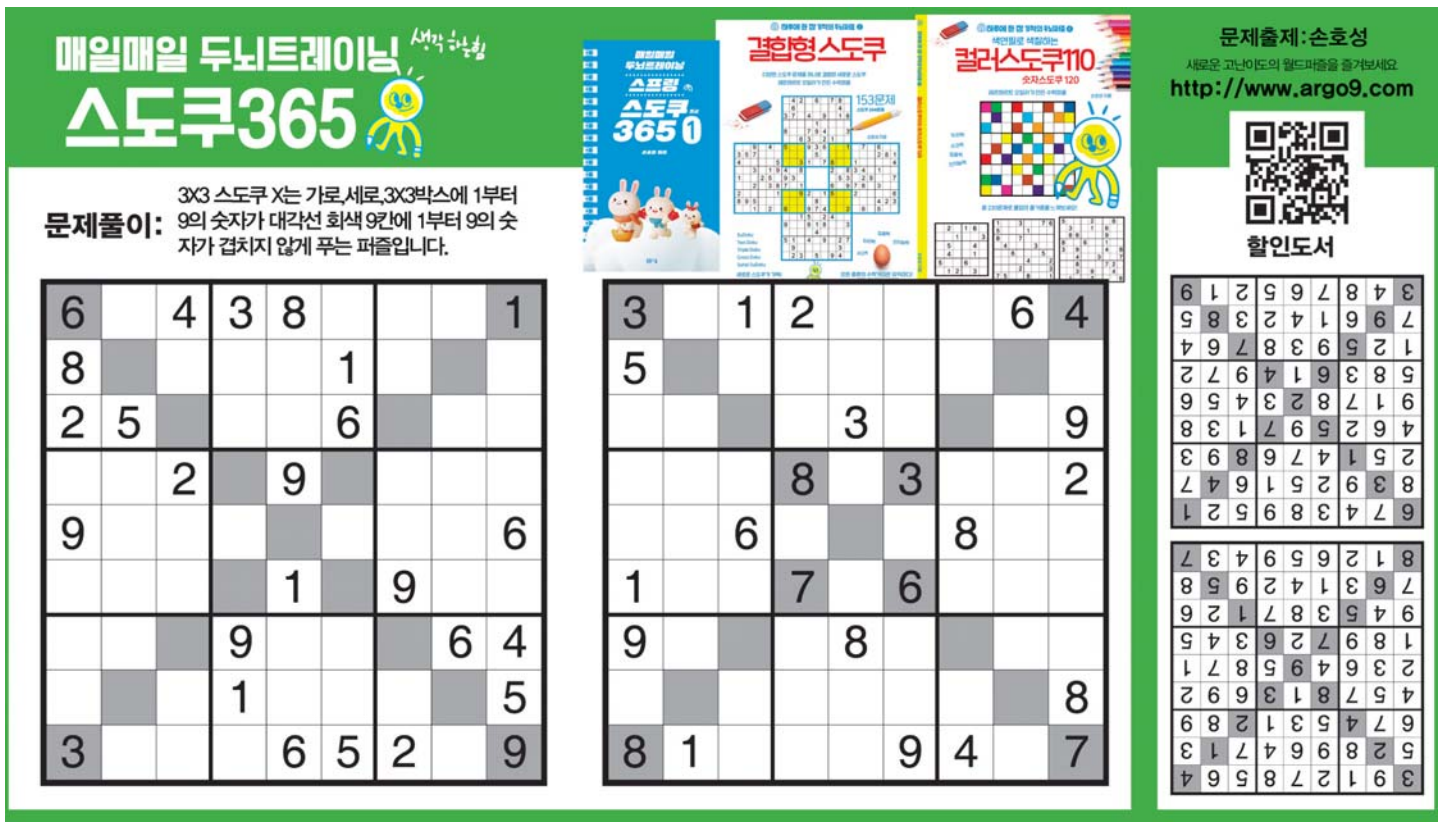
풍수에 관해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우주선을 쏘고 광활한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지구는 지구의 법칙이 있는지라 지수화풍 4대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주거지 등의 양택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음택인 땅의 기운과 형상을 몹시도 중하게 여겼던 터다. 동물들이나 초목들도 땅의 특성과 에너지에 기대어 자라는 속도나 성분 거주하는 곳도 달라지니 풍수는 반드시 인간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풍수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단연 풍수가이자 지관地官들일 것이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실의 묘터 등을 관장하던 역할을 춘추관에 두어 최고 정이품 벼슬까지 주었으니 풍수에 따른 왕릉 등의 택지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다. 조선은 풍수적 비결에 능한 무학대사의 탁견으로 개국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천우신조의 도움 없이 어찌 왕조의 발현이 가능하겠는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것도 지수화풍의 조화를 생각한 풍수적 결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망의 주자들은 한결같이 조상들의 묘가 대운을 부르고 받기에 결함이 없는 터인지를 살핀다. 그러한 터를 찾고자 지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숙종과 관련한 재미있는 얘기도 전해진다. 지관 갈처사와의 얘기다. 숙종은 평복 차림으로 잠행을 자주 한 임금으로 하루는 역시 평복 차림으로 지금의 과천 아디쯤을 지나갈 때 한 더벅머리 총각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이상히 여겨 임금은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물었다. 총각은 오늘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지관이 여기다 묘를 쓰라 해서 땅을 파는 중이라고 울면서 답했다. 숙종은 고약한 지관이 장난을 친다 생각하고는 갈처사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